

‘그레이트한(韓) 익산 여행’ 운영

중학교 1학년 대상, 익산 역사·문화·사업 체험 여행
익산문화관광재단, 참여 희망 중학교 모집… 11일까지

익산시가 청소년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익산교육지원청, (재)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레이트한(韓) 익산 여행’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고장 바로알기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애호심을 높여 지역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익산의 역사와

문화, 산업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행은 익산의 역사·문화·산업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한문화의 발상지인 익산의 뿌리 깊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유적 코스’를 비롯해 △익산을 대표하는 식품기업 방문과 지역 식품 산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관광 코스’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를 배경으로 함다 삼부자집 이야기를 통해 경제

를 문화로 품 ‘문화체험 코스’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재)익산문화관광재단(063-918-9988)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가까이서 접하고, 내 고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광을 통해 익산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익산시, 새학기 맞아 어린이 발걸음 지킨다

안전한 등·하굣길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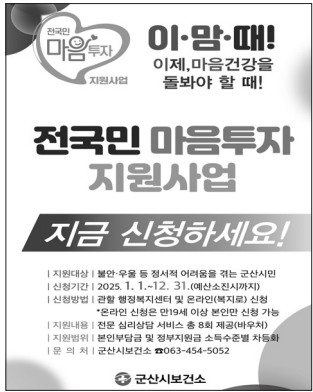
익산시가 봄철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추진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고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점심 유예 시간(낮 12시~오후 2시)은 주여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총 4,015건을 단속하고 4,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보건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마음 건강 케어·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발견 목표

군산시보건소가 올해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서비스를 받게 되면, 120일 동안 총 8회의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비용의 0~30%)이 발생할 수 있다. 회당 상담 비용은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고,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 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론헤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라며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정신건강계(☎063-454-505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희망저축계좌 I 대상자 모집… 최대 1440만원 수령

14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I’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 I’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한다.
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이 지나면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을 합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적금 만기 후 수급자를 벗어나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희망저축계좌 I’ 사업이 본인 저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모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년 동안 4회 진행되며, 1차 모집은 3월 4일~14일이다. 이후 2차 6월2일~13일, 3차 9월1일~12일, 4차 11월 3일~14일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니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청년 면접 정당
대여 지원사업 첫 시행

군산시가 미취업 구직 청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 면접 정당 무료대여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대상은 18~39세의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면접자로 거주지는 무관하다. 면접자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및 셔츠, 블라우스, 코디 물품(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면접 정당 대여는 1회 3박 4일간, 연 3회까지 무료대여가 가능하며, 접수는 군산시 청년들 누리집(<https://www.gsyouth.or.kr/main/m52/>)에 구비서류(신분증, 면접사실 증빙서류 등)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승인 대상자는 발급된 쿠폰 번호로 직접 대여업체 사이트에 예약하여 방문 또는 택배로 정장을 받고 반납하면 된다.
다만, 다른 지자체 소재 사업장 면접이나 대학(원) 응시 면접, 모의 면접 등 실제 채용과 연관되지 않는 면접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운영

익산시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확대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익산시는 ‘2025년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을 앞두고 주민이 직접 시설의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건물, 소중·분쟁 중인 시설, 법적 점검이 이미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설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을 받게 되며,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